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2025년 04월
VOL.

기도월력 276



"능력과 조위로 옷을 삼고
후일을 좇으며"

(잠언 31:25)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채널을 추가하세요



4월 28일 월요일 / 아라비아반도

젊은 아랍인 자매 마르다*는 최근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라마단 기간 동안 가족에게 신앙을 숨기는 것이 어렵다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마르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가족에게 신앙을 숨겨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힘과 용기를 얻기를 기도합니다.

4월 29일 화요일 / 북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신자는 기독교인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하루 종일 이슬람에 대해 배우면서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며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려는 가족들의 노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의 어린이들이 진리를 듣고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진리가 그들의 삶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굳건히 진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월 30일 수요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매주 화요일 저녁에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한 온라인 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요기도모임을 지키는 기도용사들을 축복하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밝게 빛나게 하시고,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시며, 일평생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더욱 많은 기도용사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전세계 박해 받는 형제자매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하나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박해 받는 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는 귀한 분들에게 대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기도월력의 기도제목들은 한국오픈도어 카카오톡채널에서 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기도월력은 홈페이지 요청하기에서 월간 『오픈도어』OpenDoors 신청 또는 한국오픈도어로 전화하시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4월 23일 수요일 / 말레이시아 (51위)

말레이시아 동부에서 신자들이 비밀리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을 떠났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마을 주민들로부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결정에는 큰 위험과 희생이 따릅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4월 24일 목요일 / 네팔 (54위)

새 신자 '쇼바'와 남편 '프라딕'은 예수님 말씀의 진리, 즉 자신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해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포함한 가족들은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손자와의 대화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쇼바는 "아들은 우리가 신앙을 떠나면 받아주겠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이 화해하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월 25일 금요일 / 스리랑카 (61위)

18세 소녀 스네하*의 가족은 불교 신자이지만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월 4일 스네하가 교회를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상황은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불교 사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는 가지 않고 교회에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스네하는 화난 어머니에게 심한 매를 맞았습니다. 소녀는 비콤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말했지만 이런 문제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녀의 가족들이 주님을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4월 26일 토요일 / 팔레스타인 (62위)

가자지구의 기독교인들은 하마스나 이스라엘 간의 끔찍한 전쟁 이후 그들의 삶과 재산을 회복하기 위해 갈 길이 멀다. 전쟁으로 인해 가자지구 기독교인의 집 중 약 75%가 파손되거나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식량과 기타 기본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을 포함하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든 트라우마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월 27일 일요일 / 아라비아반도

사미아 자매는 가족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발각되면서 가족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비밀 장소로 피신해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매 주위에 신성한 보호의 울타리를 쳐서 위험에서 보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4월 18일 금요일 / 성금요일

오늘 성금요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르며 박해받는 가족들이 구세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부활을 축하할 준비를 하면서, 신자들이 지역 교회에 모일 때 공격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부활 축하 행사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지도자들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4월 19일 토요일 / 튀르키예 (45위)

정부에서 이슬람 가치를 강조하면서 기독교인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 기독교인은 계속해서 국가를 떠나도록 강요당하거나 귀국이 금지되고 있으며, 역사가 오래된 기독교 공동체는 정부에 의해 정기적으로 감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위협이 아닌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여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적대적인 사회에서 예수님을 따를 때 담대하고 지혜롭기를, 어려움이 커져도 낙심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4월 20일 일요일 / 부활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가 부활하셨음이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주일인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이 상처받은 세상에 가져다주는 희망과 평화를, 핍박받는 우리 형제자매가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월 21일 월요일 / 키르기스스탄 (47위)

종교 및 신념의 자유와 이와 관련된 인권이 점점 더 위협받고 있습니다. 2025년 종교법은 국가의 허가 없이 종교나 신념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성인 500명이 되지 않는 공동체의 설립을 불허하는 등 많은 제한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설립 허가를 요청하는 공동체에 대한 자의적인 등록 거부, 종교나 신념의 자유 침해를 비판하는 자에 대한 투옥 및 벌금, 폭력적인 공격 가해자에 대한 사법 처리 실패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교회설립을 방해하는 독소조항들이 폐지되게 하시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4월 22일 화요일 / 말레이시아 (51위)

소외된 공동체를 지원하는 일에 평생을 바친 레이몬드 고 목사가 납치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주거용 CCTV에서 검은색 대형 차량으로 끌려가는 그의 모습이 포착된 후 지금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아내인 수산나 리우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고 이 사건에 관한 정부의 태만에 맞서기 위해 2020년부터 정부와 법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몬드 고 목사님에 관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도합니다.

4월 1일 화요일 / 북한 (1위)

최근 수백 명의 탈북자(대부분 여성)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되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님께 가까이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중국 내 오픈도어 북한 현장 사역자 한*은 중국으로 인신매매된 탈북 여성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스파이와 중국 정부로부터 이들을 보호해 주소서. 탈북 여성들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에 있는 북한 기독교인들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4월 2일 수요일 / 예멘 (3위)

복음을 전하다가 3년간 감옥에 갇혔던 유시프가 석방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열악한 환경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유수프의 믿음은 오히려 강해졌습니다. 투옥과 위험 속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시프가 지역사회에 다시 합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앞으로 어떤 핍박으로부터도 보호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사역의 단계에서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할 때 지혜와 담대함, 분별력으로 충만해지길 기도합니다.

4월 3일 목요일 / 나이지리아 (7위)

2018년 레아 샤리브는 14살의 나이에 보코하람에 의해 납치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 북부 다프치 지역의 학교에서 100명이 넘는 다른 여학생들과 같이 끌려갔습니다. 한 달간의 협상 끝에 다른 소녀들은 풀려났지만, 레아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아의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레아를 통해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레아의 어머니 레베카를 위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4월 4일 금요일 / 나이지리아 (7위)

오늘은 나이지리아 치북 마을에서 276명 이상의 소녀들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납치된 지 11년이 되는 날입니다. 91명 정도가 아직 실종 상태인데 가족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납치된 소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이 속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4월 5일 토요일 / 이란 (9위)

2월말, 이란 북부 바불시 인근의 가타바에서 열린 기독교인 모임이 사복을 입은 20여명의 이란 보안 요원들에 의해 급습당했습니다. 약 80명의 기독교인이 모인 이 모임은 갑자기 중단되었고, 기독교 개종자인

소마에 라자비는 체포되어 감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소마에 라자비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힘과 평화를 경험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번 사건에 연관된 당국자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종교의 자유와 모든 사람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4월 6일 일요일 / 아프리카니스탄 (10위)

정권을 잡고 있는 탈레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소망의 진리를 보도록 기도합니다.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힌 신자들이 보호받고 석방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온라인 성경 번역 사역을 하는 모하마드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하마드의 사역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월 7일 월요일 / 말리 (14위)

“이슬람 세금을 내거나 도망치거나.” 서아프리카 말리의 한 지역에서 신자들이 직면한 선택입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이 그들의 공동체를 장악했습니다. “학대받는 자들”(히브리서 13:3)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자들과 함께하셔서 위로와 희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계속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과 함께하소서.

4월 8일 화요일 / 이라크 (17위)

이슬람국가(ISIS:이슬람 극단주의 단체)가 이라크 북부의 일부를 점령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인들이 서서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재건되고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ISIS의 공격은 많은 이라크 기독교인에게 장기적인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픈도어는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월 9일 수요일 / 라오스 (22위)

공산주의 당국에 의해 많은 가정교회가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감시를 받는 기독교인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역사회는 개종자들을 ‘미친 영혼’을 지닌 반역자로 간주하며 그들은 가족으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 지역사회에서 쫓겨난 신자를 위로하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4월 10일 목요일 / 라오스 (22위)

라후(Lahu) 부족의 기독교 지도자 4명 라조르*, 카비아*, 제인*, 나차*가 2024년 10월 6일 라오스 북부의 한 가정교회에서 신자 19명과 함께 예배드리던 중 현지 당국에 체포되어 수감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이들의 신앙 활동을 제지하고 당국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4

명의 지도자는 감옥에 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어서 이들이 곧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지역 교회 지도자들과 파트너들이 지혜와 힘을 얻고 당국과 협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월 11일 금요일 / 방글라데시 (24위)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라주*는 숙련된 모바일 서비스 기술자입니다. 그는 집 근처 시장에서 모바일 서비스 상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2024년 8월 5일 이전 정부가 무너진 후, 라주는 시장에서 무슬림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최근 라주가 일하고 있는 라주의 가게 주변에 시장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라주, 당신은 잘못을 회개하고 이슬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곳에서 가게를 열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장 사람들은 라주의 가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은 기독교인과의 거래를 거부했습니다. 생명과 생계에 대한 두려움에 라주는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주 형제가 가족을 위해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소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소서.

4월 12일 토요일 / 쿠바 (26위)

작년에만 쿠바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한 감시, 제한, 차별과 관련된 박해 사건이 250건 가까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박해로 인해 기독교 지도자가 되기 어려운 나라에서, 특히 여성의 역할이 가정에 국한되는 사회적 규범 가운데 캐롤라이나*는 용기를 내어 기독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신학 교육을 받고 여성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어 10명의 여성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임은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역하는 여성 지도자들에게 힘과 인내를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4월 13일 일요일 / 중령주일

공개적으로 고난주간을 기념할 수 없는 전 세계의 핍박받는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왕이 이미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힘과 용기를 내어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는 형제자매 되기를 기도합니다.

4월 14일 월요일 / 콩고민주공화국 (35위)

2월 13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연합민주군(ADF) 소속으로 의심되는 무장세력에 의해 마야바 지역에서 기독교인 70명이 살해되었습니다. 마야바는 기독교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며 마을에는 이슬람 사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지역을 떠나 더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현지 뉴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루베로 지역의 바스와가 추장국에서 지난 한 달 동안 ADF 무장세력이 200명 이상을 살해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재산을 잃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

로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의 불안한 상황을 위해, 주님의 개입으로 공격이 멈추고 상황이 진정되기를 기도합니다.

4월 15일 화요일 / 이집트 (40위)

새로운 제자 훈련 학교가 곧 시작될 예정이며, 연중 5회에 걸쳐 11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래의 사역 리더를 준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모든 참가자들에게 진정한 변화와 힘을 주는 학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자훈련 그룹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리더들이 모든 구성원을 위한 안전하고 격려받는 공간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참가자들이 성경을 깊이 이해하여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로 준비되기를 기도합니다.

4월 16일 수요일 / 이집트 (40위)

대학생 예한*은 4년 연속 수업에서 상위권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조교 자리를 극단주의 무슬림 교수에 의해 부당하게 거부당했습니다. 반면 비슷한 성적을 가진 무슬림 동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조교로 임용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노골적인 차별을 받은 예한은 깊은 우울증과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치유해주시고, 그녀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권력자들의 부당한 대우로 고통받는 취약한 기독교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4월 17일 목요일 / 이집트 (40위)

카이로의 가난하고 안전하지 않은 동네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 소녀 줄리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며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줄리는 상담과 공동체를 통해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줄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